



글.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우리도 인종차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꽃보다 할배' 프로그램에 출연중인 신구
(출처 : tvN 홈페이지[program.interest.me/tvn])

“코가 크고 덩치 큰 백인들을 보면 우리는 좀 위축돼.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대등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기특해.”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던 '꽃보다 할배'(tvN) 팀의 구야 할배(신구)가 방송에서 한 말이다. 우리 구세대들에겐 백인에 대한 일종의 '인종적 열등감'이 있었음을 고백한 것이다. 인종적 열등감과 우월감, 물론 인종적 편견은 나쁜 것이라고 하

지만, 실은 어느 나라 사람에게나 있다. 이런 인종에 대한 잠재된 편견은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인과 백인. 이들 사이에 인종차별 문제가 일어난다면, 보통은 한국인이 피해자고 백인이 가해자일 것으로 상상하기 쉽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 있는 현지 한국 기업이 백인에게서 인종차별로 소송을 당했다. 현대중공업 애틀랜타 현지 법원에서 2009년 인사담당 간부로 일했던 미국인이 해고되자 “백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60만 달러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소장에서 “2008년 현지 법인장으로 취임한 한국인 대표가 오자마자 법인의 얼굴을 미국인에서 젊은 한국인으로 바꾸는 게 임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특하면 직원들 앞에서 ‘조직이 너무 늙었다’고 개탄하면서 나이와 인종으로 편을 갈랐다”고 주장했다. 또 한인 직원들은 자기들끼리만 밥을 먹고, 골프를 쳐서 소외감을 줬다는 것이다. 당시 법인장은 한 행사에서 “한국, 중국, 일본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돈이 많아 보이면 중국인, 똑똑해 보이면 일본인, 잘생겼으면 한국인”이라는 인종 가르기 식의 농담을 해서 논란을 일으

켰다고도 주장했다.

이 소송에선 원고가 패소했다. 이 소송이 알려진 건 한국기업이 이겼다는 통신 보도를 통해서였다.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회사가 한인을 선호한 건 인종적 이유보다 사업적 이유로 판단된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일부 통신과 인터넷 매체에 보도됐으나 일간지 등 주요 매체에 선관심을 받지 못했다. <중앙일보>만 이제 한국인들도 인종문제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는 사실과 칼럼을 내보낸 게 거의 전부였다. 뉴스밸류로 볼 때 이긴 사건이라는 점에서 크게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고, 미국 지역 뉴스여서 크게 중요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글로벌 경쟁에 나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 세계화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도,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역사도 20년 남짓밖에 안 된다. 그 사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게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동남아 등지에서 현지공장 노동자 폭행 등 여러 가지 인종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 이번 소송이 제기된 도시가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랜타였다. 조지아주엔 현대·기아차 공장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다. 여기서 지난 6월 한국계 자동차 부품공장 흑인여성 근로

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걸 계기로 반한 시위로 번진 사례도 있었다. 공장 측은 사망원인이 해당 근로자의 지병때문이라고 했지만 현지의 노동계와 주의회 의원 등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적인 가혹한 노동환경을 지목하면서 착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위는 반한운동으로 번져서 애를 먹었다. 이렇게 인종문제는 감정적이고 문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일어나면 수습하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젠 갑이 된 한국인들의 '한국적 방식'에 대해 현지인들은 '차별' 혹은 '착취'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젠 우리도 인종문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된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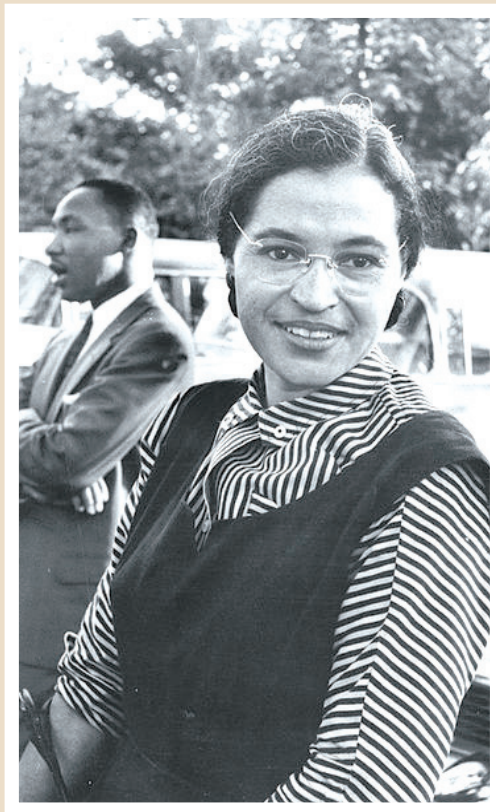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을 배척하거나 낯설어 해도 이게 인종차별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로 살아왔고, 한국인들은 외세를 침략의 주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거다. 그렇다 보니 인종차별이라는 문제 자체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고, 인종차별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지난해 한 공중파 방송에서 외국남자와 한국여자의 교제 실태를 보도하면서 외국남자들은 전부 한국 여성

을 유린하는 데만 집중하는 듯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다. 당시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인종차별적 의식을 비판하고, 방송사에 항의방문을 하고, 항의하는 글을 쓰고 동영상 만들어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항의했지만 한국인들은 무관심했다. 언론매체들도 이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인종차별철폐는 세계적인 핫 이슈다. 이 문제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건 오래되진 않았다. 미국에서 1955년 로자 파크스가 버스 좌석 양보를 거부해 기소된 후 흑인 인권운동으로 번지고 이듬해 인종차별철폐법안을 이끌어내면서 시작됐다. 말하자면 60년도 안 된 역사인데 이후 인류는 인종차별을 중대한 인권문제로 인식하고 엄격히 금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고 인종차별이 없어진 건 아니다. 얼마 전 재산만 3조에 이르는 오프라 윈프리도 스위스에 여행갔다가 상점에 들어가서 비싼 가방을 보여달라고 했다 거부당하는 인종차별을 당한 일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 개개인의 차별의식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세계 사회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즉각 사회 전체가 '그건 나쁜 행동'이라

고 지적하는 등 의식의 단계는 대단히 높아졌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을 이끈 로자 파크스(1913~2005)
(출처: 위키피디아[en.wikipedia.org])

인종차별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주목’하고
‘교육’해야 한다. 언론은 끊임없이 인종차별 문제

에 대해 주목하고 보도하며, 낯선 문화와 민족에 대한 반감과 차별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알려야 한다. 다음은 공교육 과정을 통한 교육이다. 미국 인문교육의 상당부분은 인종차별 철폐의 노력이라든지 왜 인종차별이 범죄인지 등을 가르치는 데 할애돼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예 교육이 없다시피하다. 사실 다른 것에 대한 차별의식은 생래적인(편집자 주: 세상에 태어난 이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의식을 차단하려면 의식적으로 ‘차별은 나쁘다’는 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한다. 이런 교육은 내가 인종차별을 하지 않고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도 하지만, 내가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인은 지금 글로벌한 존재다. 차별을 해서도 당해서도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차별금지교육은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알게 하는 데 중요하다.